

보도시점 2025. 1. 23.(목) 11:00 배포 2025. 1. 23.(목) 11:00

##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 엄단 -
- 배달의민족 2월, 쿠팡이츠 3월 내 배달수수료 인하 시행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3(목) 10:4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여 ①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②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③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④배달 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아,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을 목표로 1.7일부터 1.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추·무는 매일 200톤<sup>주)</sup> 이상을 도매 시장에 공급 중이며, 1.25일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2만톤을

주)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등 플랫폼업계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 하고,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사무관	최규철	(044-215-2813)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귀범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김형선	(044-215-273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책임자	과 장	박상우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044-215-2939)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044-215-4514)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신민경	(044-215-4532)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4년 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1%,  
연간 2.0%를 기록했습니다.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내수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5만톤 공급을 목표로  
1.7일부터 1.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sup>주)</sup>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1.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2만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정부는 작년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해 왔습니다.

소비자에게 445억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주)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하겠습니다.

####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작년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배달수수료 인하 등 상생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